

# 고창 태봉 정상서 '마한시대 토성' 확인

군, 백제 ~ 조선시대 기와편  
건물지·토루 등 흔적 확인

고창군이 아산면 봉덕리와 고수면 예지리에 걸쳐 있는 태봉(해발 111.9m)에서 문헌기록과 전설 등으로만 알려졌던 마한시대 토성을 확인했다.

고창군과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택구)은 지난해부터 토성의 명확한 위치와 범위,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지표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태봉 정상부와 상단부 일원에서 백제 ~ 조선시대 기와편과 함께 건물지, 태봉의 상단부를 감싸는 토루(폭 4m 내외)와 문지 등의 흔적을 확인했다.

현재 '예지리토성'으로 명명된 토성은 1765년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고성봉(古城峰)'이라 불렀고, 삼한시대에 쌓은 것으로 전해지는 토루(土壘)가 존재함이 처음 기록됐다. 이후 작성된 '대동지지', '문헌비고', '고창현읍지', '모양지'와 1942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록들을 확인했다.

군은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태봉 정상부를 감싸는 구상유구와 그 내외에서 마한토기로 추정되는 굽다리토기편과 소량의 연질토기편이 수습돼 마한시대 유적이 밝혀졌으며, 망루(望樓)형 건물지의 흔적도 확인됐다.

또 토루 표본조사 결과, 토루의 바깥쪽 2~3m의 정밀한 판축 다짐층과 안쪽의 성토층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마한시대 토성 축성 기술과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고창 아산면 봉덕리와 고수면 예지리에 걸쳐 있는 태봉에서 마한시대 토성이 확인됐다. 사진은 태봉 정상부 시굴조사 전경.

현재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와 고수면 예지리 일원은 국내 마한 문화유적 최대 밀집분포 지역으로, 마한의 중심지이자 수도였을 거라 추측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그동안 문헌과 전설로만 알려졌던 마한 토성(태봉)의 실체를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토성의 전체적인 규모와 성격 등을 규명하고, 향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토루(土壘) : 토성에서 방어라인을 형성하는데 굴을 조성하면서 나온 흙으로 성벽을 조

성하며 험준한 자연지형을 이용한다든가 사면을 삭토해 만든 곳.

\*판축(版築): 성벽, 담장 등을 쌓을 때 흙의 양쪽에 판자를 대고 흙이나 모래 등으로 켜켜이 단단하게 다지면서 흙을 쌓아 올리는 기법.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자료총서 2권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총서,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과, '전라남도유도청명회'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돼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해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화,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청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했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가운데 지량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적인 전라남도 유도청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인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해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또한 그동안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엮어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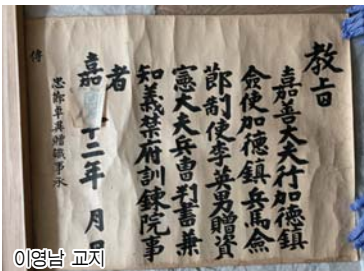
## 임진왜란 활약 이영남 교지, 박물관으로

전주박물관,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임진왜란때 활약했던 이영남 교지 등 3점을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전했다.

이영남(李英男, 1571~1598)은 전의(全義) 이씨(李氏) 가문에서 이정효의 아들로 1571년 전주 남문 밖에서 태어나, 18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 울포만호(栗浦萬戶), 가덕진첨사(加德鎭鎭使)를 지내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절도사에게 청병하여 원군의 수군과 함께 육포에서 왜적을 물리치는데 기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순신 장군의 영문에서 크게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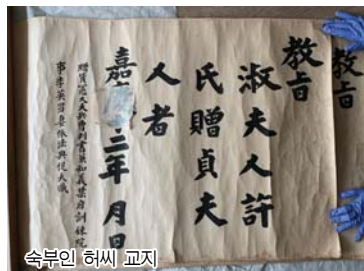
이영남 교지

으며, 정유재란때도 활약하다가 1598년 노량진해전에서 순직해 선조 때(1604년) 선무원종일등공신(宣武原從一等功臣)에 녹훈됐다.



관지

현재 이영남의 사당, 선충사(宣忠祠)가 전주시 중화산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영남 교지'는 1807년(순조7년) 이영남



숙부의 허씨 교지

장군에게 병조판서를 증직(贈職)하면서 내린 교지다. 교지(敎旨)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다.

당시 전라도 유학 송상설 등 75명이 함께 이영남의 공을 논하며 추증을 위해 상소를 올렸다고 전한다.

숙부인(淑夫人) 허씨에게 정부인(貞夫人) 봉작을 내리는 교지와 이진열(생몰년 미상)이라는 지역 유림의 과거시험 답안지도 함께 기증받았다.

이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무관 출신 이영남과 집안 인물에 대한 연구 기초를 마련하고, 조선 역사 속 인물이 19세기가 되어 지역 유학자들의 뜻을 모아 한번 더 재평가되는 상황을 추증교지라는 문화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현관 국립전주박물관은 이번에 기증받은 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 정밀 조사해 향후 전시와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